

# 2010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 펜타포트 아츠 페스티벌 | 펜타포트 프린지 페스티벌



## FESTIVAL PROGRAM 페스티벌 프로그램

펜타포트아츠페스티벌 야외공연 (장소: 개막/ 인천아트플랫폼, 폐막/ 인천대공연)

| 프로그램 | 공연제목                    | 일시                           | 출연진 (세부내용)   |  |
|------|-------------------------|------------------------------|--|--|
| 식전행사 | 학술 세미나                  | 7.31 (토) 14시                 |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논하며 보는 학술포럼                                    |  |
|      | World & Crossover Music | 7.31 (토) 19시                 | 하림+앨리스 인 네버랜드, 씨파디, 소울스튜디오락스, 불어름가을겨울                                |  |
|      |                         | 8.1 (일) 18시                  | 연영석과 델리케이팅필링, 키오&호지, 광명, 이우창, 손병휘&아트블라드                              |  |
|      |                         | 8.2 (월)/8.4 (수) 18시          | 일단은준석이들, 김철연   |  |
|      | 개막공연                    | Rookie of the year 2007~2010 | 8.2 (월) 19:30  | 'Dancing in Art Platform': 텔레파시, 구남과여러이딩스텔라, 글소년단                |
|      |                         |                              | 8.3 (화) 19:00  | '여성 싱어송 라이터의 새로운 발견'<br>'욕상달빛, 시와, 루네, 임주연밴드 (with 언니네이발관 '이동룡)' |
|      |                         |                              | 8.4 (수) 19:30  | '2000년대 복고사운드': TV멜로우, 네온스, 99수자들                                |
|      |                         | 주말밤 콘서트                      | 8.4 (수) 12시  | 유발이의 소풍  |
|      |                         | 국악 & 비트양상블                   | 8.5 (목) 19:30  | 한울소리, 다비, 드림캣  |
|      |                         | 플랫폼 블루스                      | 8.6 (금) 19:30  | 강하달림, 로다운30, 한성완밴드   |
| 폐막공연 | Nu Folk Music (사막도시)    | 8.7 (토) 18시                  | 나비, 이장혁, 이지형, 서드스톤, 허클베리핀  |  |
|      | 내 사람 속 오래된 추억           | 8.8 (일) 18시                  | 장다운밴드, 3호선버터플라이, 서울전우연단, 정원영밴드, 갤럭시시크스프레스                            |  |
|      | 아듀~ 2010 펜타포트!          | 8.14 (토) 15시                 | 오후만 있던 토요일: 비둘기우유, 코스모스, 코코어<br>2000년대 여성 싱어송라이터: 오소영, 오지은, 황보영, 이성은 |  |
|      |                         |                              |  |  |

\* 상기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펜타포트아츠페스티벌 실내공연

| 프로그램   | 공연제목              | 일시   | 장소                 | 공연내용   |
|--------|-------------------|--|--------------------|--|
| 연극     | 극단 여행자 <한여름 밤의 꿈> | 7.30 (금)~8.1 (일)<br>금 20시, 토/일 16시             | 부평아트센터<br>해누리극장    | ·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한국적 색채로 각색<br>· 음악과 다양한 몸짓이 어우러지는 연극  |
| 뮤지컬    | 오픈뮤지컬컴퍼니 <오디션>    | 8.6 (금)~8.8 (일)<br>금 20시, 토/일 16시              | 부평아트센터<br>해누리극장    | · 아마추어 인디 밴드의 첫 공연 성공기<br>· 라이브 콘서트형 밴드 뮤지컬의 원조작품  |
| 음악극    | 두산아트센터 <천변실종>     | 8.13 (금)~8.15 (일)<br>금 20시, 토 15시/19시<br>일 16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br>소공연장 | · 1930년대 만요를 소재로 하여 노드라마와 어쿠스틱 밴드가 가미된 음악극<br>· 독특한 음악세계를 가진 작곡가 '하림'과 뮤지컬 배우 '박준명'의 연기를 통해 1930년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공연 |
| 월드뮤지   | 기획공연 <트래디셔널&재즈>   | 8.21 (토)~8.22 (일)<br>토/일 16시                   | 부평아트센터<br>해누리극장    | · 정인아&서늘도밴드, 밀로  |
| 오페라    | 인천오페라단 <아이디>      | 8.27 (금)~8.29 (일)<br>금/토 19:30, 일 16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br>대공연장 | · 이집트 왕자 라디메스와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디의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랑<br>· 웅장한 무대와 아름다운 선율의 오페라<br>· 로마 극장 주역가수로 주요 배역 선정                    |
| 댄스 워크숍 | 스윙댄스 워크숍          | 8.2 (월)~8.3 (화) 15시                            | 아트플랫폼<br>공연장       | · 1950~60년대 로큰롤 음악에 맞춰 흥겨운 스윙댄스를 배워 보는 시간  |
|        | 라틴댄스 워크숍          | 8.4 (수)~8.5 (목) 15시                            |                    | · 무더운 여름, 사랑하는 연인과 낭만적인 라틴댄스를 배워보는 시간  |

\* 티켓예매 (신청): 인터파크 1544-1555 / 엔터켓 1588-2341 / www.pentaport.kr

### 펜타포트프린지페스티벌

| 프로그램                        | 일시  | 장소                      | 출연진 (세부내용)  |
|-----------------------------|---|-------------------------|---|
| '달콤쌔름한 바닷가에서' <프린지 인 월미도>   | 8.5 (목)~8.13 (금)<br>16시~22시<br>(기획공연 21시) | 월미도<br>아와무대             | 신진 아티스트 및 시민 동호회의 자유창가 무대 / 8.13 (금): 송골매 (자유창가)<br>(기획공연 '울면서 춤추기, 그래드 싫은 게수단')<br>8.5 (목): 치즈스테레오 / 8.6 (금): 태바코 쥬스 / 8.7 (토): 달빛오징어전원루츨런<br>8.8 (일): 가을방학  |
| '이사 전 집들이' <프린지 인 플랫폼>      | 8.30 (월)~<br>8.11 (수) (예정)                | 펜타포트<br>프린지 하우스<br>(예정) | 신진 아티스트 및 시민 동호회의 자유창가 무대   |
| '프린지, 플랫폼에 머물다' <프린지 인 플랫폼> | 8.2 (월)~8.6 (금)                           | 아트플랫폼<br>아와무대           | 신진 아티스트 및 시민 동호회의 자유창가 무대   |
| '금요일 밤의 열기' <프린지 인 클럽>      | 7.30 (금)<br>8.6 (금)<br>8.13 (금)           | 루비살롱 (19시)              | 인천밴드특집<br>아마추어 증폭된 Sorri<br>Nu Folk<br>이장혁, 빅터뉴   |
|                             |   | 비범라인 (20시)              | 인천 재즈에 빠지다: (블루스)<br>인천 재즈에 빠지다: (펄고)<br>인천 재즈에 빠지다: (스탠다드)   |
|                             |   | 모베터 블루스 (21:30)         | Pop & Rock Ballad<br>Soul & Hard Rock   |
|                             |   |                         | 서드스톤, 블루니어머더<br>아마추어증폭기, 소히<br>이장혁, 빅터뉴<br>불운근 밴드, 칠리장 블루스 밴드<br>이한영 trio, 라벤타나<br>이한영 trio, 차현 프로젝트<br>코발트블루, 모베터블루스 하우스밴드 (Feat. 신수경)<br>권순우밴드, 모베터블루스 하우스밴드 (Feat. 스티먼)<br>발자디, 모베터블루스 하우스밴드 (Feat. 김우준) |



문의처: 인천펜타포트 페스티벌 사무국 032-761-9600 www.pentaport.kr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펜타포트락페스티벌

에어처 : 인터파크 1544-1555

| 예매일                             | 티켓종류 | 가격               | 공연일시  |
|---------------------------------|------|------------------|---|
| 6월 22일<br>~30일                  | 1일권  | 70,000원 (VAT포함)  | 7.23 (금) 10:00AM~24 (토) 9:00AM<br>7.24 (토) 10:00AM~25 (일) 9:00AM<br>7.25 (일) 10:00AM~26 (월) 11:00AM |
|                                 | 2일권  | 90,000원 (VAT포함)  | 7.23 (금) 10:00AM~25 (일) 9:00AM<br>7.24 (토) 10:00AM~26 (월) 11:00AM                                   |
|                                 | 3일권  | 110,000원 (VAT포함) | 7.23 (금) 10:00AM~26 (월) 11:00AM   |
| 7월 1일~<br>(하일 SK카드 결제 시 10% 할인) | 1일권  | 77,000원 (VAT포함)  | 7.23 (금) 10:00AM~24 (토) 9:00AM<br>7.24 (토) 10:00AM~25 (일) 9:00AM<br>7.25 (일) 10:00AM~26 (월) 11:00AM |
|                                 | 2일권  | 99,000원 (VAT포함)  | 7.23 (금) 10:00AM~25 (일) 9:00AM<br>7.24 (토) 10:00AM~26 (월) 11:00AM                                   |
|                                 | 3일권  | 121,000원 (VAT포함) | 7.23 (금) 10:00AM~26 (월) 11:00AM   |

티켓오픈 6월 22일 (화) 오후2시



인천펜타포트아츠페스티벌 개막공연

인천아트플랫폼 가든 스테이지 \_ 2010년 7월 31일 (토)~8월 8일 (일), 오후 6시~10시 (※ 무료공연)

“아트플랫폼 가든 콘서트” 총 9일간 벌어지는 아츠페스티벌의 개막공연에서는 2010년 현재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현재 활동 중인 뮤지션을 중에서 창작과 연주 면에서 주목할만한 팀들을 선정했다. 아울러 개막공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단순한 공연기획이 아니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창조적인 공간운영’을 통한 새로운 축제 모델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여느 공연과 달리 개막공연을 “음악, 맥주, 비치파라솔 아래서 꿈과 사랑을 얘기하는 활기찬 인천 문화시민”으로 상정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개막공연에 온다면 비치파라솔에 앉아서 좋은 음악공연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인천펜타포트아츠페스티벌 폐막공연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_ 2010년 8월 14일 (토), 오후 3시~10시 (※ 무료공연)

“아듀~ 2010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은 축제기획자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공간이다. 사실 인천대공원만큼 ‘공원’ 본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도 흔치 않지만, 호수를 돌아 마주하게 되는 넓은 잔디밭은 대규모 야외 음악공연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이다. 그래서 쾌적한 잔디밭과 잘 어울릴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8월 14일이 주말이라서 인천의 많은 시민들이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공원에 온다는 점, 시기적으로 휴가철이 끝나가는 늦여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휴식’ 개념의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아직 낮은 무렵이지만 밤에는 가을의 초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므로 200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이 들려주는 감성적인 음악에 빠져드는 것도 분명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위안’과 ‘감동’을 주는 축제”

2010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은 ‘음악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모토로 2010년 7월 22일에 새롭게 시작되는 ‘대중예술축제’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에 새롭게 인천펜타포트아츠페스티벌과 인천펜타포트프린지페스티벌이 첨가되었다. 만국공통어인 음악을 매개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축제, 동시대 음악인 대중음악으로 아시아/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시민 중심 축제를 지향한다. 그래서 음악적 모티브를 가진 다양한 공연예술 장르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시대를 관통하는 대중음악 트렌드를 포착하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신진 아티스트 발굴과 시민 참여 무대를 중시한다.

언젠가 한 음악인은 “기쁨을 게워내어 노래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인지 이후 더 이상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노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고, 진정성을 가진 뮤지션들의 가슴 뜨거운 외침에 대한 화답을 하고 싶다.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은 각박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감동’을 주는 축제가 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음악을 통해서 세상이 ‘평온’해 지기”를 바란다. 설사 그것이 축제 현장에서 잠시 맛보는 것일지라도...

ARTS FESTIVAL

펜타포트아츠페스티벌

에어처 : 인터파크 1544-1555 엔터톡 1588-2341

| 프로그램   | 공연제목              | 티켓가격  | 일시   | 장소              |
|--------|-------------------|---|--|-----------------|
| 연극     | 극단 여행자 <한여름 밤의 꿈> | R석 3만원<br>S석 2만원                                  | 7.30 (금)~8.1 (일)<br>금 20시, 토/일 16시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 뮤지컬    | 오른편뮤지컬컴퍼니 <오디선>   | R석 3만원<br>S석 2만원                                  | 8.6 (금)~8.8 (일)<br>금 20시, 토/일 16시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 음악극    | 두산아트센터 <친변살롱>     | R석 3만원<br>S석 2만원                                  | 8.13 (금)~8.15 (일)<br>금 20시, 토 15시/19시<br>일 16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 월드뮤직   | 기획공연 <트래디셔널&재즈뮤직> | R석 2만원<br>S석 1만원                                  | 8.21 (토)~8.22 (일)<br>토/일 16시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 오페라    | 인천오페라단 <아이디>      | VP석 15만원<br>R석 10만원<br>S석 7만원<br>A석 3만원<br>B석 2만원 | 8.27 (금)~8.29 (일)<br>금/토 19:30, 일 16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 댄스 워크숍 | 스윙댄스 워크숍          | 무료 공연   | 8.2 (월)~8.3 (화) 15시                            | 아트플랫폼 공연장       |
|        | 라틴댄스 워크숍          | 축제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8.4 (수)~8.5 (목) 15시                            |                 |

펜타포트아츠페스티벌 티켓할인

| NO | 티켓종류        | 할인율 | 비고                               |
|----|-------------|-----|----------------------------------|
| 1  | 청소년 할인      | 50% | S석에 한 함 (1인 1매) / 오페라(아이디)별도     |
| 2  | 단체 할인       | 20% | 15인 이상                           |
| 3  | 국가유공자 및 장애우 | 50% | 국가유공자 및 장애우 (동반 1인)              |
| 4  | 장년층         | 30% | 만 50세 이상 (1인 2매 가능) / 오페라(아이디)별도 |
| 5  | 회원할인        | 20% | 펜타포트축제 홈페이지 회원에 한함 (1인 4매)       |



2010 인천펜타포트록페스티벌 라인업

| 7.23 (FRI)  | 7.24 (SAT)   | 7.25 (SUN)  |
|---|--|---|
| <b>Stereophonics</b><br>강산에<br>갤럭시익스프레스<br><b>The Like Ninesin</b><br>뉴렛<br>스트라이커스<br>윤희<br>오지은<br>이상혁&오소영<br><b>DJ Yoda</b><br>조덕환 from 들국화 feat.??<br><br><b>and more</b> | <b>Hoobastank</b><br><b>LCD Soundsystem</b><br>국카스텐<br>넘버원코리아<br>데이브레이크<br><b>Kishidan</b><br>10cm<br>와이낫<br>YB<br>이상민밴드<br><b>Waglug Futuristic Unity</b><br>폰부스<br>피아<br><br><b>and more</b> | <b>Ian Brown</b><br>김창완밴드<br><b>Dir En Grey</b><br>뜨거운감자<br><b>Ego-Wrappin</b><br>세렌게티<br>슈퍼키드<br><b>The Grates</b><br>I&I 장단<br>오르겔탄츠<br><b>Opshop</b><br>이한철<br>킹스턴루디스카<br>허클베리핀<br><b>Kap10Kurt</b><br><br><b>and more</b> |

주최 |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SBS  
 제작투자 | 인터파크 INT  
 후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관 | yescom IFC 인천문화재단 드림파크문화재단  
 제작협력 | Access WU ENTERTAINMENT  
 협찬 | 하나은행

www.pentaportrock.com

티켓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인천펜타포트 아시아뮤직비즈니스컨퍼런스 (IPAMC)

'인천펜타포트 아시아뮤직비즈니스컨퍼런스 (IPAMC)'는 국내외 대중음악산업 및 축제 관계자들이 서로의 정보 공유와 각국의 현황을 소개 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 나가는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입니다. 대중음악산업 및 축제산업에 다양성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폭넓은 이슈들을 점검하고 국제적인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대중음악 및 축제산업은 좁게는 아시아, 넓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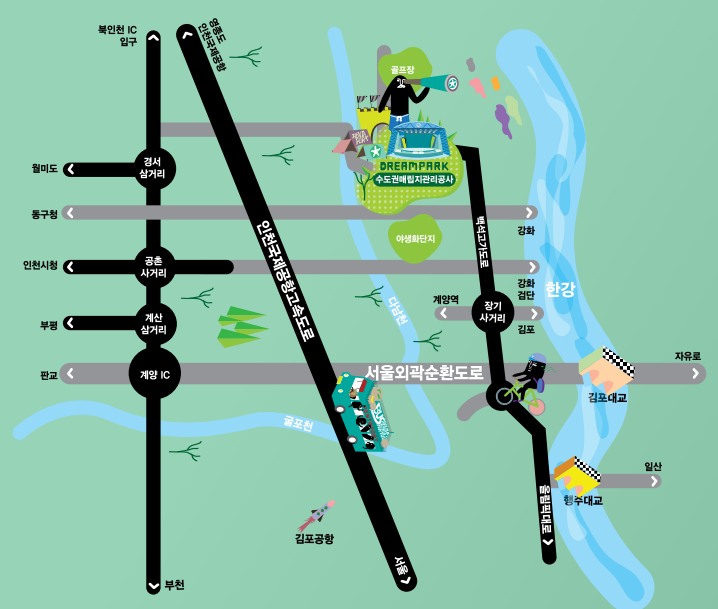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축제홈페이지 www.pentaport.kr에서 확인)

- 국내외 음악산업/축제 관계자 초청 강연 (홍콩 뮤직 매거즈 대표 등)
- 각국의 뮤직 비즈니스 현황 소개 및 정보 공유
- 락 페스티벌 행사장 내 비즈니스 존 운영
- 뮤직비즈니스를 위한 네트워킹 파티

일시 : 2010년 7월 22일 (목) 오후3시~오후10시 장소 : 인천파라다이스호텔

문의처 :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 사무국 (032-760-1322)

오시는 길



**1 자가용 > 올림픽대로 이용하실 때**  
 -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 올림픽대로 → 수송도로삼거리 → 수도권매립지전영도로 → 정기사거리 → 백석고가차도 (독정사거리) → 왕길고가차도 → 행사장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하실 때**  
 -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 계양C → 일학지하차도 → 계산삼거리 → 공촌사거리 → 서부산업단지 (주물공단) → 북인천C 입구 (우회전 후 직진 1.7km) → 종합환경연구단지 → 행사장  
 네비게이션 입력주소 : 인천시 서구 경서동 2-1 (국립생물자원관)

**2 행사장 셔틀버스 안내 > 인천공항철도 검암역 → 행사장 / 20~30분 간격 운행 예정 (약 10분 소요)**  
 ※ 셔틀버스 시간표는 추후 공지됩니다.

**3 대중교통 > 지하철/공항철도 이용시**  
 -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 (환승) 인천공항철도 검암역 하차 → 행사장 셔틀버스 이용  
 인천 1호선 계양역 → (환승) 인천공항철도 검암역 하차 → 행사장 셔틀버스 이용  
**버스 이용시**  
 - 인천 시내버스 이용 국립생활지원안 하차 → 행사장 도보 약 1km  
 - 간선 40 / 좌석 111, 302, 306, 308, 710  
 - 검암역 하차 → 셔틀버스 이용  
 - 간선 28, 자선 591  
 - 검암역입구 하차 →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약 300m → 셔틀버스 이용  
 - 간선 1, 7, 13, 17, 77 / 급행간선 901, 902, 903 / 좌석 308, 700 (화도)  
**서울 광역버스 이용시**  
 - 1100, 2100 백석동 태평리파트 하차 → 환승 (1, 7, 13, 17, 77)  
 검암역입구 하차 →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약 300m → 셔틀버스 이용  
 대중교통정보 검색하기 <http://traffic.visitkorea.or.kr/>





“나를 축제하게 하라” - 프린지음악장려운동

2010 인천펜타포트프린지페스티벌은 예술가들이 아니라 관객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축제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프린지 무대는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공연과 알려지지 않았으나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인천 지역 라이브 클럽의 기획공연을 통해 차별화 된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금요일밤의 열기 - 프린지 인 클럽

금요일, 라이브 클럽에서 느끼는 뜨거운 열기!

| 장소     | 일시              | 공연내용                 | 출연진                             | 입장료     |
|--------|-----------------|----------------------|---------------------------------|---------|
| 루비살롱   | 7.30 (금) 19시    | 인천밴드특집               | 서드스톤, 블루니아머더                    | 무료 입장   |
|        | 8.6 (금) 19시     | 아마추어중독된 sorri        | 아마추어중독기, 소히                     |         |
|        | 8.13 (금) 19시    | Nu Folk              | 이창혁, 빅터뷰                        |         |
| 바텀라인   | 7.30 (금) 20시    | 인천! 재즈에 빠지다 : <블루스>  | 봉요근 밴드, 찰리정 블루스 밴드              | 5,000 원 |
|        | 8.6 (금) 20시     | 인천! 재즈에 빠지다 : <탱고>   | 이한영 트리오, 라벤타나                   |         |
|        | 8.13 (금) 20시    | 인천! 재즈에 빠지다 : <스탠다드> | 이한영 trio, 차현 프로젝트               |         |
| 모베터블루스 | 7.30 (금) 21시30분 | Pop & Rock Ballad    | 코발트블루, 모베터블루스 하우스밴드 (Feat. 신수경) | 무료 입장   |
|        | 8. 6 (금) 21시30분 | Soul & Hard Rock     | 권순우밴드, 모베터블루스 하우스밴드 (Feat. 신태민) |         |
|        | 8.13 (금) 21시30분 | Pop & Soft Rock      | 발자막, 모베터블루스 하우스밴드 (Feat. 김우준)   |         |

프린지, 플랫폼에 머물다 - 프린지 인 플랫폼 / 달콤 씹싸름한 바닷가에서 - 프린지 인 월미도

나를 축제하게 하라! 누구나 축제의 주인공으로 변신하는 프린지의 무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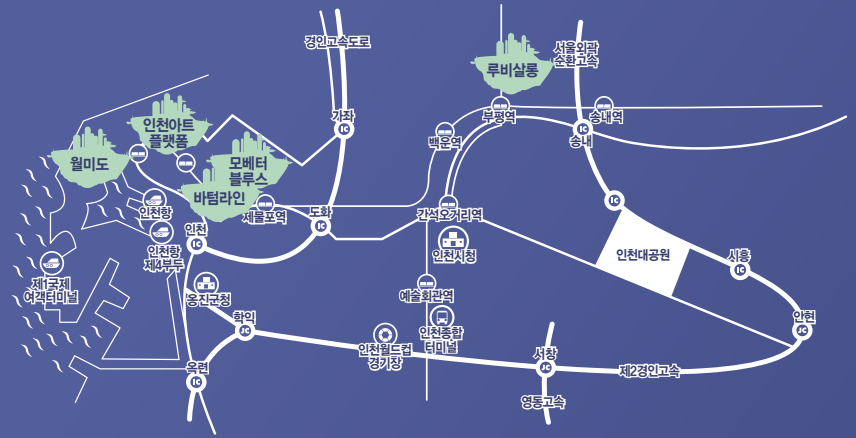
| 구분                          | 장소                | 공연내용 및 출연진                   | 일시   |              |
|-----------------------------|-------------------|------------------------------|--|--------------|
| 이사 전 집들이 <프린지 인 플랫폼>        | 펜타포트 프린지 하우스 <예정> | 신진 아티스트 및 시민들의 자유 참가 무대      | 7.30 (금)~8.11 (수) <예정>                                 |              |
| '프린지, 플랫폼에 머물다' <프린지 인 플랫폼> | 아트플랫폼 야외무대        | 신진 아티스트 및 시민들의 자유 참가 무대      | 8.2 (월)~8.6 (금) 18시~19시30분<br>8.5 (목)~8.13 (금) 16시~22시 |              |
| 달콤씹싸름한 바닷가에서 <프린지 인 월미도>    | 월미도 야외무대          | 울면서 춤추기, 그래도 삶은 계속 된다 (기획공연) | 치즈스테레오   | 8.5 (목) 21시  |
|                             |                   |                              | 타코جو 주스  | 8.6 (금) 21시  |
|                             |                   |                              | 달빛요정역전 만루출현  | 8.7 (토) 21시  |
|                             |                   |                              | 가을방학   | 8.8 (일) 21시  |
|                             |                   |                              | 송 끝 매 (자유참가)   | 8.13 (금) 21시 |

프린지 인 월미도 - 기획공연

울면서 춤추기,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빛이 들어선 인천 월미도에서는 놀이기구를 타는 중고생들이 많이 보인다. 유람선을 타려고 기다리는 중년들도 많다. 바다를 보며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보인다. 또 월미도에는 최고의 국민MC, 탤버린 MC도 있다. 월미도는 시민들이 편하게 찾는 휴양지다. 큰 맘 먹고 거금을 들이지 않아도 바다를 볼 수 있다. 치즈스테레오, 타코جو 주스, 달빛요정역전만루출현, 가을방학의 음악도 편안한 휴양지 같은 음악을 한다. 이들의 음악도 큰마음을 먹고 들어야 하는 어려운 음악이 아니다. 바다를 보고 싶으면 쉽게 갈 수 있는 월미도처럼 감정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음악이다. 펜타포트프린지페스티벌 초청공연은 이별에 아파하고, 꿈에 처치고, 자기 자신과도 친하지 않은 보통의 존재들에 바치는 따뜻한 위로다. 달콤 씹싸름한 인생, 달콤 씹싸름한 월미도 여름 바닷가. 이들의 음악과 함께 울면서 춤추자. 춤추면서 울자. 그래도 삶은 계속 되니까.

오시는 길



1 월미도 야외무대 >

시내버스 이용시 - 2, 15, 23, 45번 월미도 정류장 하차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인천역 하차 후 45번 승차 - 풍물시장 정류장 하차  
홈페이지 : [www.my-land.co.kr](http://www.my-land.co.kr) 전화번호 : 032-761-0997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98-580번지

2 인천아트플랫폼 >

시내버스 이용시 - 5, 15, 28, 720번 인천 중구청 정류장 하차  
- 2, 15, 23, 28, 45, 306번 인천역 하차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인천역 하차. 중부경찰서 방면 5분 거리  
자가용 이용시 - 제 1 경인고속도로 : 인천항 - 월미도 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 제 2 경인고속도로 : 고속도로종점 - 월미도 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홈페이지 : [www.inartplatform.kr](http://www.inartplatform.kr) 전화번호 : 032-760-1000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1가 10-1

3 루비살롱 >

시내버스 이용시 - 88, 1, 103-1, 12, 14-1, 45, 67, 559, 561, 565 (부평역 하차)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부평역 하차. 북부역 방향으로 나가신 후 지하 쇼핑센터 12번 출구 (스타벅스 향) 악곡 골목으로 들어가서 첫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 50m 정도 이동 후 1층에 렉스바가 있는 건물 2층  
홈페이지 : [www.rubysalon.com](http://www.rubysalon.com) 전화번호 : 070-7623-1825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159-49번지 2층

4 바텀라인 >

시내버스 이용시 - 15, 28, 720, 306번 신포동 주민센터 하차  
- 12, 16, 17-1, 23, 24, 112번 신포시장 정류장 하차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동인천역 하차 후 도보로 약 2Km  
※ 휴애문 옆 인선여고 1km 이내 중화루 앞 2층  
홈페이지 : [cafe.daum.net/Bottomline](http://cafe.daum.net/Bottomline) 전화번호 : 032-766-8211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

5 모베터 블루스 >

시내버스 이용시 - 15, 28, 720, 306번 신포동 주민센터 하차  
- 12, 16, 17-1, 23, 24, 112번 신포시장 정류장 하차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동인천역 하차. 신포동 (중구청) 방향으로 도보 5분  
- 신포동 문화의 거리 분수대 앞 베스킨라빈스 건물 2층  
홈페이지 : [cafe.naver.com/morebetterblues.cafe](http://cafe.naver.com/morebetterblues.cafe) 전화번호 : 032-761-2050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7





## 아트플랫폼 가든 콘서트 <개막>

인천아트플랫폼 가든 스테이지  
2010년 7월 31일 (토) ~ 8월 8일 (일), 오후 6시~10시

WORLD & CROSSOVER MUSIC

### 월드 & 크로스오버 뮤직 (7/31~8/1)

현재 월드뮤직은 단지 제3세계 민속음악을 지칭하지 않고, 제3세계 민속음악과 영미권의 대중음악 코드가 결합된 음악을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월드뮤직은 사실 록, 포크, 재즈, 블루스 등이 결합된 크로스오버 뮤직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게 사실이다. 인천펜타포스티벌 안에는 이미 2006년부터 진행된 록페스티벌이 자리 잡고 있어서, '2010년 현재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측면에서 월드 & 크로스오버 뮤직을 개막공연에서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 7.31 (토), 오후 7시



**불어를가을겨울 >** 2002년 6년만의 정규앨범 [Bravo, My Life]를 발표하고, 앨범동명 타이틀곡 〈Bravo, My Life〉가 오렌진의 히트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증명했다. 이후 2008년 8집 [아름답다, 아름다워]와 4장의 출중한 라이브 앨범들을 발표했다.

**씨지타 (Sagitta) >** 10여년의 시간 동안 코코어를 이끌어온 걸출한 뮤지션 이우성과 DJ, 공연기획자, 디자이너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이정은, 씨지타는 부부이자 감성의 자장을 공유하는 두 아티스트의 결합이다. [Hello World], [Hello Stranger]를 발표했다.

**소울 스테디 락커스 (Soul Steady Rockers) >** 소울을 사랑하는 전자인과 레게에 빠진 존백 그리고 세 친구를, 고통하고 동창생 다섯의 기투합이 소울스테디락커스의 시작이다. 소울스테디락커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소울과 레게를 덩, 아프로비트,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오소와 결합시켜 들려주는 현대적 해석에 있다.

**하림 & 앨리스 인 네버랜드 (Alice In Neverland) >** 2001년 [다중인격자]로 데뷔한 하림은 2004년 2집 [Whistle In A Maze]를 발표하며 자신만의 진한 감성을 담지한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그 나라의 민속 악기를 가지고 왔고, 흥대 주변 거리에서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앨리스 인 네버랜드는 두 번째 딸의 멤버들이 새롭게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이다. 2007년 [Alice In Neverland]를 발표한 이들은 2009년 밴드 전체가 함께 좋아하고 즐기며 연주하는 집시 음악을 담은 [Festa In Neverland]를 발표했다.

### 8.1 (일), 오후 6시



**손병희와 아트블러드 (Art Blood) >** 여러 시인에서 가져온 시어에 훌륭한 호응하는 멜로디 라인, 포크 록의 전통을 따르는 건설성 소리이팅이 언어의 순간을 청각으로 옮기는 적절한 악기 배치로 이루어 드라마틱한 시운드 효과, 메시지의 성숙함, 담론의 수준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손병희의 대표작 [촛불과 바다]는 음악인 손병희를 조명할 수 있는 앨범이기도 하다. 음악적 발달은 [삼9]에도 이어진다. 전곡의 포크 록은 규묘와 비친의 성장으로 아트록에까지 손을 뻗고 있음을 (강물은 똑바로 가지는 입자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와 같은 대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창 >** 2009년 발표한 [Daily Pause]는 어느 한 인물의 하루 일상을 재조로 표현한 앨범이다. 색소폰에 인달곡, 흥소울, 트럼펫에 정광진, 드럼에 이종훈, 피커션에 발치노 아나스타시오 등이 참여한 이 앨범은 아침을 깨우는 듯한 〈Trinkle Latin (AM 09:15)〉, 〈Daylight (AM 11:40)〉, 짧은 휴식을 취하며 꾸는 꿈 〈Dreamer (P.M 01:20)〉,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마감하는 〈Soo-Joo (AM 02:00)〉 등 한 인물의 하루가 시간대별로 표현되어 있다.

**공명 >** 공명소, 피리, 태평소, 소금 등의 국악기와 첼레, 디저리우, 하모니카, 실벨 등의 외국악기, 그리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직접 만들어낸 전자기구, 대나무북, 발자국 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통해 전통음악에서 월드뮤직에 이르는 폭넓은 연주를 들려준다.

**키오&호지 프로젝트 (Kio & Hodge Project) >** 키오는 김현식과 불어를가을겨울의 베이시스트로 씬에 등장하여, 빛과 소금의 한 축으로 활동하며 우리에게 (삼무의 요정)이란 결정적 순간을 들려주었던 음악인 장기호가 보여주는 또 다른 이름이다. 호지는 윤도현밴드의 시적을 함께 하고 키오의 멤버로도 알려진 강호정이다. 키오&호지에서는 키오가 낭만적 성향의 송라이터인 한 축을 맡고 있다면 호지는 세련된 시운드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 <아트플랫폼 가든 스테이지>

"Rookie of the year 2007~2010"

**연영석과 델리케이트필링 (Delicate Feeling) >** 2000년대를 대표하는 음악창작자이면서 노동음악가. 2005년 [술] 이후 5년 간 그의 새로운 모습을 기록할 음반은 없었다. 그 동안 자신의 노래가 삶 속에 묻히기를 바라며 공연을 이어온 연영석은 집회, 운동, 사회적 이슈가 있는 현장만 아니라 흥대 클럽 등 다양한 무대에 서며 그의 음악적인 색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다시 한 번 성장한 '뮤지션' 연영석을 만나게 될 것이다.

### Rookie Of The Year 2007~2010 (8.2~8.4)

'신인 발굴'은 '아티스트 조명'과 함께 공연예술축제가 가져야할 소임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96년에 한국에서 인디레이블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국 대중음악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목할만한 신인 뮤지션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2005년 광명음악밸리축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고, 현재 벌어지는 많은 대형 대중음악전문축제는 바로 그들이 있기에 운영이 가능할 정도이다. 2010 인천펜타포스티벌에서는 특히 음악에서의 창작성과 독자적인 스타일을 주목하고 있고, 2007년 이후 음반을 발표한 신인들 중에서 10팀을 선정했다.

### 8.2 (월), 오후 7시 30분 "Dancing In Art Platform"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 허술한 듯하면서도 곳곳에 숨겨둔 매력적인 프리에이즈와 유틸, 그리고 한국말로 풀어낸 삶의 흔적들이 얹혀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의 음악은 인디씬의 새로운 경향이 되었다.

**굴소넨단 (Oyster Boys) >** 록킹한 트래크와 그루브한 레게 넘버가 공존하는 팝인식 록인식 댄스뮤직인식 하나로 정할 수 없는 장르의 교합. 2009년 첫 앨범 [Tiger Soul] 그리고 얼마 전 발표한 두 번째 EP [여유자적 에너지]까지 이 유연한 태도는 뚜렷하다.

**텔레파시 (Telepathy) >** 게토밤즈 출신의 최석 (보컬, 신서사저, 프로그래밍)의 주도하에 네스티야나 출신의 이호진 (키보드), 이용진 (드럼), 황재연 (기타), 박유석 (영상)의 라인업으로 결성된 텔레파시는 포스트 펑크와 뉴웨이브에 근거한 일렉트로니카와 펑크를 융합한, 밴드 포맷으로 댄스 비트를 연주하는 밴드이다.

### 8.3 (화), 오후 7시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새로운 발견"



**임주연밴드 with 이능룡 (언니네이발관) >** 실용음악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며 재학 당시 불어를가을겨울, 페닉 등의 공연을 함께 하는 등 출중한 연주력을 가진 재원으로 이미 인정받은 그녀. 유쾌한 음악경연대회에서 선보인 〈가려진 마음〉은 '싱어 송 라이터 임주연'의 인상 깊은 첫 인사였다. 특별히 이번 공연에는 언니네이발관의 재능 넘치는 기타리스트 이능룡이 세션에 참여하여 독특한 질감의 공연을 선보일 것이다.

**루네 (Lune) >** 허클베리핀의 공연 게스트와 이기용의 솔로 프로젝트 스왈로우의 세션 멤버로 데뷔 이전부터 알려졌던 루네의 데뷔앨범 [안생트]는 이를 이끌고 발성하는 듯한 독특한 목소리로 손에 잡히지 않은 채 뒤로 멀어지던 가는 처량 풍경처럼 이리나리 정서를 담아내 통째로 여성 싱어송라이터군과 구별되는 강한 개성을 뽐내고 있다.

**시와 (Siwa) >** '그렇게 눈부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한 때가 사라집니다.' 바람을 품은 듯 서늘한 목소리가 조용히 곡을 달는 순간. 어디 하나 화려한 손짓 없었음에도 (회양연화)에는 듣는 이의 순간을 정지시키는 힘이 있다.

**옥상달빛 (Daimoon) >** 김윤주, 박세진으로 구성된 옥상달빛은 영동하면서 귀여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여성 포크 듀오이다. 옥상달빛의 데뷔 EP [옥탈라도는] 평범하면서도 서정적인 선율에 스물 너머 그 또래들의 고민을 담아 낸 〈하드코어 인생이〉, 드라마 '파스타'에 수록되었던 〈옥상달빛〉 등 옥탈라들이 누워 바라본 하늘처럼 아름답지만, 어찌할 바 없는 청춘의 노래들이 실려 있다.

### 8.4 (수), 오후 7시 30분 "2000년대의 복고 사운드"



## 《아트플랫폼 가든 스테이지》

“버스킹밴드”, “국악&비트앙상블” & “플랫폼블루스”

**9와 숫자들 >** ‘9’는 로로스, 흐른, 데미안 등 자기 감성의 색이 뚜렷한 밴드들을 품고 있는 튜데이블우보먼트의 수장 송재경이다.

그는 복고와 사이키델릭 속에서 유명했던 그림자공간 기타리스트로 인상적인 순간을 남긴 ‘9’이다.

**TV옐로우 (TV Yellow) >** 2004년 LP보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 2010년여 데뷔 앨범을 발표한 늦깎이 신인밴드 TV옐로우는 70년대 뉴욕 펑크의 댄서를 버전 또는 80년대 뉴웨이브의 록밴드 버전처럼 들리는, 록강함과 댄서불함이 적절히 결합된 곡들을 선보이고 있다.

**네온스 (Neons) >** 몽구스의 리더이자 스타리아이드의 베이스리스트로 활동한 문구의 솔로 프로젝트이다. [Dancing Zoo]와 [The Mongoose]로 작정한 신스팝을 들려주며 2006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 앨범에 지명되기도 했던 총명한 복고 소년 문구는 네온스를 통해 몽구스와는 다른 장면들을 생성한다.

## “버스킹 밴드 (Busking Band)” 오후 6시



**일단은 준석이들 (8월 2일) >** 이준석과 정도혁, 두 사람의 유닛이지만 일단은 준석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도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관객들이 일단 준석이가 되어 즐겨보자는 의미에서다.

**김철현 (8월 4일) >** 어쿠스틱 기타를 베고 비트박스와 춤을 선보이는 전자음악 전공 래퍼. 꽤 단단한 실력을 가진 유니크한 음악적 캐릭터의 등장. 전자음악, 어쿠스틱 사운드, 랩, 비트박스, 그리고 댄스라는 타이틀은 각기 실질적 요소로 음악 안에서 가능하다.

## “국악 & 비트앙상블” 8.5 (목), 오후 7시 30분



**드럼캣 (Drum Cat) >** 두드림이란 성질을 가진 남성적 악기 드럼을 연주하는 여성이란 정반합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리듬으로만 이끌어 가기에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드럼 연주의 한계를 록, 일렉트로닉, 재즈, 라틴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비트를 활용함으로써 극복하고 있다.

**다비 >** 여성 거문고 연주자 강희진, 안정희, 정호정으로 구성된 거문고 앙상블. 가야금이나 해금에 비해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한 거문고 연주를 통해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려 한다.

**한울소리 >** 한국 전통 타악에 충실하면서도 전통을 재해석하고, 현대적인 감성을 접목시킨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년버블 타악 퍼포먼스 공연단체인 한울소리는 기존의 타악기와 재현용 악기들을 이용하여 ‘음악, 춤, 놀이’가 결합된 흥겨운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 “플랫폼 블루스” 8.6 (금), 오후 7시 30분



**한상원밴드 >** 두 장의 솔로 앨범과 전인권, 이현도와의 콜레보레이션, 키스와 현재 한상원밴드까지, 10년의 유학생활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가 들려준 홍보와 성취를 감안하면 ‘펑크 마스터 (Funky Master)’라는 닉네임은 천장이 가미되었다기보다 적절한 수사이다.

**로다운30 (Lowdown30) >** 90년대 국내 헤비메탈의 기린어였던 노이즈가든의 아쉬운 해체 이후 기타리스트 윤병주의 활동은 대부분 블루스에 관련되어 있었다. 윤병주, 김각진, 이민주 트리오 라인업으로 공연하는 로다운30은 블루스 기반으로 즉흥적인 연주를 즐기는 잼밴드의 모양새였고, 록의 원초적인 에너지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막강한 라이브를 선사한다.

**강하달림 >** 통기타를 연주하며 걸죽한 목소리로 노래하던 그녀는 신촌 블루스의 보컬리스트로 활동했고, 2005년 가을 4곡이 담긴 첫 싱글 [독백]을 발표했다. 한영에 이후 매력이 끊긴 블루지한 표현이 가능한 여성 보컬리스트의 등장이다.

## 《아트플랫폼 가든 스테이지》

“Nu Folk Movement(사막도시)” & “내 서랍 속 오래된 추억”

## “Nu Folk Movement – 사막도시” 8.7 (토), 오후 6시



**허클베리핀 (Huckleberry Finn) >** 데뷔앨범 [18일의 수요일]을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허클베리핀은 마이너의 기운이 장악하는 음악을 고수해왔다. 스트레이트한 록 넘버를 연주할 때나 어쿠스틱 악기가 개입하는 미드 템포의 곡에서나 한결 같이 표현되는 허클베리핀 특유의 정서는 음악에서 만 자라나는 식물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언가를 건드린다.

**이장혁 >** 1998년에서 2010년으로. 얼터너티브에서 포크로, 아무밴드에서 그냥 이장혁으로. 외침에서 독백으로, 시막의 왕에서 코끼리맨으로. 시간은 흘렀고 소리는 낮아졌고 등장인물은 달라졌을 지라도 이장혁의 세계는 일관된다. 일관되게 어두우며 고립된 세계. 비우고 또 덜어내어 전체를 균일한 톤으로 맞춤 두 번째 앨범 [Vol. 2]로 그의 세계는 더욱 세밀하게 심화 혹은 진화되었다.

**이지형 >** 이지형의 이름이 ‘여전하’ 위퍼의 (숨어있기 좋은 방)이나 ‘다만’ 토이의 (뜨거운 안방)으로 기억되고 이야기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강렬함에 기대기보다 일상을 소비하고 부드럽게 읽어내는 가사, 인상적인 멜로디와 재기 넘치는 사운드로 구현되는 편안한 팝 톤.

**서드 스톤 (Third Stone) >** 10년여의 활동을 통해 싸이델릭한 블루스록을 구현하고 있는 밴드이다. 지미 헨드릭스의 곡 (Third Stone From The Sun)에서 밴드명을 가져왔다. 2009년 발표한 2집 [I'm Not A Blues Man]은 60~70년대 음악에 집중했던 1집 보다 블루지한 표현이 길어진 앨범이다.

**나비 >** 2008년 헬로루키로 선정되었던 나비는 클럽 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싱어송라이터이다. ‘앨리스 뮤직/루비살롱 레코드’를 통해 데뷔 EP [나비]를 발표했다.

\* 2010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일반공모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작품입니다.

## 헌정공연 “내 서랍 속 오래된 추억” 8.8 (일), 오후 6시

현재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선사한 국내외 선배 뮤지션들에 대한 헌정 공연. 축제사무국과 음반사 루비토는 공연 전에 공연과 관련된 헌정 음반을 발매할 예정이다.



**정원영밴드 >** 70년대 후반부터 재즈 피아니스트, 키보드리스트, 작곡자로 정원영은 꾸준한 음악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직업에는 재즈, 펑크와 특이한 순간들 등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에 대한 넓은 시야와 그 속에서 자기 톤을 추구하려는 음악인으로서의 야심, 여러 요소를 하나의 결과 직조하는 능숙함이 모두 담겨 있다.

**서울전자음악단 (Seoul Electric Band) >** 2009년 발표한 [Life Is Strange]를 들고 있으면 롤링 스톤즈, 지미 헨드릭스에서 70년대 잼밴드 등 황금기 록밴드가 이뤄낸 호응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고목의 거친 등걸처럼 모진 상황에도 살아남는 독실 있는 록의 본질을 느낄 수 있다.

**3호선 버터플라이 (3rd Line Butterfly) >** 오랜만에 발표한 [Nine Days Or A Million] EP 속 깊은 은근해진 성기원의 서정은 한 데미 무게를 달아낸 듯 성숙한 완급조절과 정돈된 걸이 돌보이는 사운드 그리고 언제나처럼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남성이의 매력적인 보컬과 람 톤 되어 흐르고 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 (Galaxy Express) >** ‘모름지기 록밴드의 라이브란 이런 것이다’고 선언하는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공연은 예너텍하기로 정평이 났다. 기타, 베이스, 드럼의 3인조 라인업으로 설 새 없이 쏟아내는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연주는 무대와 객석 모두를 달진 일보직전까지 몰아붙인다.

**징다운밴드 >** 모던재즈, 락페레게, 김장훈밴드 등에서 활동하고, 여러 가요음반에서 기타 세션으로서 참여하고, ‘미녀는 괴로워’, ‘달자의 봄’ 같은 영화, 드라마 음악에서 작곡, 편곡, 세션연주자로 활동했었다. 네티즌들이 곡을 직접 올리고 발매되는 사이트를 통해 2007년 첫 싱글을 발표했다.

## 아듀~ 2010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 <폐막>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2010년 8월 14일 (토) 오후 3시~10시

오후만 있던 토요일 / 2000년대 여성 싱어송라이터

### “오후만 있던 토요일” (오후 4시)



**코코어 (Cocore) >** 1998년 데뷔 앨범 [Odar]을 발표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코어는 어느 한 장 히트루 볼 수 없는 앨범을 발표했다. 2집 [Boyish]와 3집 [Super Stars]를 통해 하나의 장르에 규정되지 않는 폭넓은 스타일의 록큰롤을 선보였다. 특히 [Super Stars]는 두근거리는 록큰롤 넘버를 담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 올해의 앨범으로 선정되었다. 2006년 더블앨범 [Fire, Dance With Me]를 발표했고, 2009년 레이블 컴퍼니를 통해 [Relax]를 발표했다.

**코스모스 (Cosmos) >** 1997년 김성혁과 정우민을 주축으로 결성된 코스모스는 기타와 키보드의 안정적인 결합이 빛어낸 사운드로 주목 받았다. 2000년 데뷔앨범 [Standard]를 거쳐 2002년 [One And Only] 두 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당시 해외 기타 팝 트렌드를 수용했다. 복귀에 힘입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 앨범 [Hanei Sky]에서는 여전히 부드럽고 간소한 멜로디로 빛어낸 좋은 노래들과 함께 전통적인 기타 팝 밴드 사운드에 대한 김성혁의 깊은 형수와 욕망을 엿볼 수 있다.

**비둘기 유유 (Vidulgi Ooyoo) >** 슈게이징, 드론, 노이즈락과 블루지락이 모두 어우러진 사이키델리아. 어디 한 군데 적을 돌 수 없던 음악적 자랑. 부딪혀 울리는 소리들이 만든 독특한 공간감. 두 대의 기타가 엇갈리며 그 공간에 균열을 새겨줄 때 그려지던 날카로운 상상과 풍부한 장면들. 예측할 수 없는 질주와 멈춤의 교차가 만드는 다이내믹한 호흡들.

### “2000년대의 중요한 음악적 흐름 – 여성 싱어송라이터” (오후 6시 30분)

200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성 싱어송라이터’ 부분이다. 이는 1990년대의 중요한 여성 음악창 작자로 한영애, 장필순, 이성은을 거론하는 수준에서 양적으로 급격하게 많아졌다든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올해 축제에 나오는 이성은, 황보영, 오지은, 오소영, 임주연, 루엔, 시와, 옥성달빛 뿐만 아니라 이소라, 조원선, 김유미, 손지연, 흐른 등은 현재 한국 대중음악의 표상이다.



**이성은 >** 올해 14집 [We Are Made Of Stardust]를 발표한 이성은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하며 코스모폴리탄인 말이 어색하지 않은 굵직한 음악적 행적을 그려왔다. 자신의 음악세계를 진지하게 성찰했던 그녀의 성과는 1993년 [이성은]에 이르러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제작/발매한 [공무도하기]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1999년 발표한 9집 [Asian Prescription] 이후 이성은은 일렉트로니카와 만나고, 다시 어쿠스틱, 아날로그 사운드와 만나고, 또 다시 일렉트로니카와 조우하며 2000년대에 5장의 음반을 발표했다.

**황보영 (=Smackssoft) >** 2001년 두 번째 앨범 [태양꽃]을 내놓고 훌쩍 미국으로 떠났던 황보영의 음악은 2.5집 [Smackssoft]로 7년 후에도 다시 이어진다. 작은 것들로부터 나오는 울림을 증폭시켜 세상을 그려내는 특유의 방법론, 미니멀하여 오히려 세상을 관통하는 시선, 종래에 배여 있지 않은 듯 자유로운 기풍, 폭발과 침침의 교차와 그 균열 속에서 만들어지는 풍성한 상상.

**오지은 >** 구불방에서 혼자 부를 노래인 듯 하지만 대중적인 코드를 잘 담아내고 있는 영민한 싱어송라이터. 자신이 원하는, 자신 가슴 속에 머무러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레이블 시온디노에바를 설립한 후 발표한 1집 [자은]은 20대 여성이 솔직하게 또박또박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다.

**오소영 >** 진솔한 감성으로 자기 노래를 부르는 송라이터의 아름다운 신곡이었던 [기억상실], 이후 8집이 지난 2009년 [A Tempo]로 그녀가 돌아왔다. 그동안 음악을 접을 생각도 했었다는 오소영은 [A Tempo] 속에서 무런가 어둠을 겪고 난 사람의 후일담 같은 정서를 담아낸다. 출구 없는 일상과 잃어버린 시간과 표류하는 기억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과거로부터 밀려오는 유령들이 두려운 성인의 리듬을 가진 노래들, 쓰린 현실과 상처를 그려낸 서도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우리를 데려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 실내공연

### 극단 여행자 : 연극 <한여름 밤의 꿈>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보편적인 사랑이야기를 한국 전래의 육담과 해학으로 바꾸려 한국적 정서의 낭만회극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2009년 대한민국연극대상 연출상에 빛나는 양정웅 연출은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과 뛰어난 독창성으로 동양의 셰익스피어가 세계무대에서 한 판 벌이는 재기발랄한 난장은 인천펜타포트아츠페스티벌을 찾은 관객에게 매혹적인 꿈을 선사할 것이다.

- 2006 영국 런던 바비칸센터 초청공연 (한국최초)
- 2006 제10회 폴란드그단스크페스티벌 (대상, 관객상)



### 오픈런뮤지컬컴퍼니 : 뮤지컬 <오디션>

뮤지컬 <오디션>은 아마추어 인디 밴드의 좌충우돌 성공기를 그린 작품이다.

출연 배우가 직접 밴드의 악기를 연주하는 “한국 최초의 라이브콘서트형 뮤지컬”로서 악기의 연주가 가능한 배우를 우선 선발하여 캐스팅 이후 1년간 각각의 악기별 레슨을 거쳤다. 뮤지컬 <오디션>은 지난 3년간 8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연기, 노래, 연주 세 가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풍부한 배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이것이 수많은 아류, 모방자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3년간 무패의 흥행기록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다.

-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 음악상
- 제13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



### 두산아트센터 : 음악극 <천변살롱>

2009년 공연당시 독특한 두산아트센터의 음악기획시리즈로 진회 매진을 기록했던 <천변살롱>이 인천펜타포트아츠페스티벌을 찾았다.

<천변살롱>은 1930년대 만요를 기본으로 극과 라이브밴드의 연주가 가미된 음악극이다. 1930년대 만요는 대중음악 장르 중 하나였다. 주류는 특히 트루트나 신민요와 달리 만요는 일상생활의 소소한 내용을 자유로운 가사에 담아냈으며, ‘오빠는 풍각쟁이’, ‘왕서방연서’ 등이 있다. 이번 공연에는 실력파 뮤지컬배우 ‘박준민’과 테크닉보다는 감성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한 뮤지션 ‘하림’이 음악감독 및 배우로 전격 출연한다.



### 월드뮤직 기획공연 : <트래디셔널&재즈 뮤직>

말로는 ‘한국적 서정의 재해석’을 위해 자신의 독창적인 곡들을 선보여 왔다. 최근작인 5집 [This Moment]에서는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를 핵심으로 한 미니멀한 편곡이 돋보인다. 재즈 본연적 에너지로 충만한 감성적인 보컬리스트이다. 축약방식은 ‘모던 가이름’ 연주자 정민이는 가이름 연주인이 아니라 특유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작곡, 편곡, 작사, 보컬 등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 최근 ‘프리스트 베이스의 제왕’이라 불리는 서연도와 함께 2집 [잔상]을 발표하며 흡입력 있는 멜로디를 지닌 창작곡들로 주목받고 있다.



### 인천오페라단 : 오페라 <아이다>

이집트 왕자 라다메스와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담은 <오페라 아이다>는 모든 장소에서 베르디 예술의 진정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오페라는 영웅 주역적 색채를 지닌 이탈리아 오페라인 동시에 참된 인간적인 감정으로 넘치는 ‘그랜드 오페라’를 지향한다. 베르디 중기 오페라의 결정판인 <아이다>는 원래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하여 작곡했으며, 초연 당시에는 공연 중 실제 코끼리가 등장했다고 한다.

<아이다>의 음악은 실질적으로 뛰어난 흥취뿐만 아니라, 멜로디가 아름다워 누구나 예나나 친근하게 이해된다. 특히 무대 장면이 호화찬란하여 미국적인 정취에 넘쳐 있고, 출구로 또한 감동적이며 기교적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극중 제막에 아이다가 부르는 ‘이기고 돌아오라’와 라다메스의 사랑노래 ‘정결한 아이다’, 제3막에서 아이다가 부르는 ‘오, 나의 조국’ 등은 모두 서정성이 넘쳐 있는 명곡들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청소년 대상의 오페라 리허설과 가극 <아리아의 백스테이지> 투어도 진행됐다.

- 작곡 : 베르디 (G. Verdi)
- 지휘 : Victor Kulkov



## 〈부대행사 및 이벤트〉

### FESTIVAL IN FESTIVAL

#### 축제 부대행사

##### ★ 일상에예술창작센터 〈프리마켓〉

일시 : 2010. 7. 31 (토) ~ 8. 1 (일) 15시 ~ 20시  
장소 : 아트플랫폼 내 버스킹 밴드 스테이지

거리와 공원 등 일상의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창작자들과 시민들이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 생산과 소비의 새롭고 대안적인 자생예술 시장이자 축제의 장

##### ★ 움직이는 가게 : 시민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시 : 2010. 7. 31 (토) 15시 ~ 21시  
장소 : 아트플랫폼

아름다운가게에는 어떤 물품들이 기증 가능할까? 내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세상을 위해서는 아직 더 쓰여야 할 물품들을 기증받고 이를 판매하는 행사를 통해 일상속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 ★ 〈향뮤직〉 음반판매

일시 : 2010. 7. 31 (토) ~ 8. 8 (일) 15시 ~ 21시  
장소 : 아트플랫폼

펜타포트 페스티벌 출연뮤지션 관련 음반 판매  
www.hyangmusic.com

##### ★ 스윙댄스 워크숍

일시 : 2010. 8. 2 (월) ~ 8. 3 (화) 15:00~17:00  
장소 : 아트플랫폼 공연장 주관 : 띠따라 댄스클럽

1950~60년대 로큰롤 음악을 맞춰 흥겨운 스윙댄스를 배워보는 시간

#### 축제 이벤트

##### ★ 너에게 쓰는 음악 편지

한여름 밤, 잔디밭 위에서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함께 듣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신청하세요! 선정을 통해 8월 14일 여성 싱어송 라이터 중 한 명이 음악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이벤트 참조)

##### ★ 솔로구제프로젝트

축제 현장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솔로구제부스에 고고!  
입장시 받은 꽃과 연락처를 부스에 전달해 주시면 커플전도사들이 그 이성에게 전달해드립니다. 두근두근, 화기애애, 일광달콤한 축제를 함께 만들어 보아요!

※ 축제이벤트 상세안내 및 참여신청 :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www.pentaport.kr>

##### ★ 아름다운 커피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커피 이야기

일시 : 2010. 7. 31 (토) ~ 8. 8 (일) 15시 ~ 21시  
장소 : 아트플랫폼 아름다운커피 부스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된 커피 한 잔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

##### ★ 성공회 푸드뱅크 〈주역법콘서트 '유발이의 소풍'〉

일시 : 2010. 8. 4 (수), 12시 ~ 13시  
장소 : 아트플랫폼 가든 스테이지

점심은 '주역밥'으로 대 신하고, 점심값은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주역밥 콘서트. "유발이의 소풍"은 사랑을 꿈꾸는 평범한 소녀 "유발이"의 속내를 재즈 기반의 어쿠스틱한 연주로 대중과 가까운 거리에서 교감한다.

##### ★ 시민체험프로그램

일시 : 2010. 7. 31 (토) ~ 8. 1 (일) / 8. 7 (토) ~ 8. 8 (일) 16시 ~ 18시  
장소 : 아트플랫폼 주관 : 미추홀 문화회관

요술풍선아트, POP (예쁜글씨쓰기), 네일아트, 양초공예

##### ★ 라틴댄스 워크숍

일시 : 2010. 8. 4 (수) ~ 8. 5 (목) 15:00 ~ 17:00  
장소 : 아트플랫폼 공연장 주관 : PC/컴퍼니

무더운 여름, 사랑하는 연인과 낭만적인 라틴댄스를 배워보는 시간

##### ★ 다시 보는 락앤버비

일시 : 2010. 8. 1 (일) / 8. 6 (금) ~ 8. 8 (일) 12시 ~ 21시  
장소 : 아트플랫폼 공연장

인천펜타포트페스티벌 '락 & 무비'에서 상영되었던 작품 재상영

##### ★ 꽃을 달고 미 (美)친척 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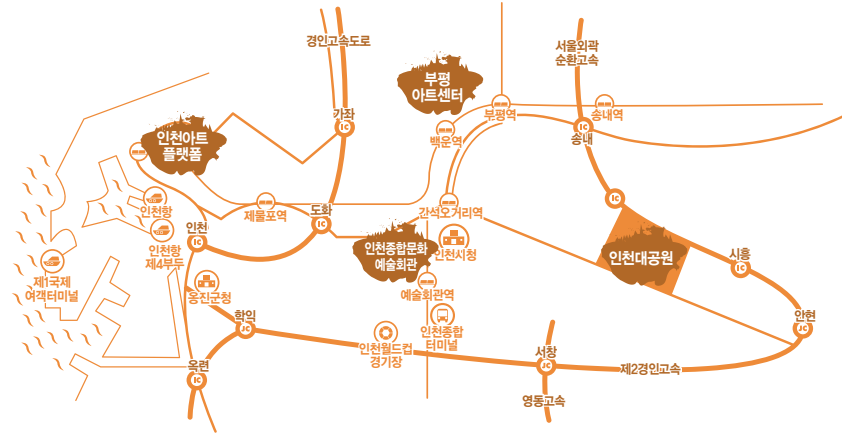
축제 기간중 아트플랫폼과 인천대공원에 오시는 관객에게 아름다운 꽃을 드립니다! (선착순 한정)  
을 여름 휴가엔 꽃을 달고 마음껏 음악에 미 (美)쳐 보자구요!

##### ★ 시간을 달리는 우체국

우편물은 커녕, 이메일도 한 통 오지 않는 외로운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엽서 한 장 보내주세요!  
2011년 초여름, 2010년의 내가 섰던 발을 걸어서 거예요.

## 〈아트페스티벌 맵〉

### 오시는 길



- 1 인천아트플랫폼 >**
  - 시내버스 이용시 - 5, 15, 28, 720번 인천 중구청 정류장 하차 - 2, 15, 23, 28, 45, 306번 인천역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인천역 하차. 중부경찰서 방면 5분 거리
  - 자가용 이용시 - 제 1 경인고속도로 : 인천항 - 율미도 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 제 2 경인고속도로 : 고속도로종점 - 율미도 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 홈페이지 : [www.inartplatform.kr](http://www.inartplatform.kr) 전화번호 : 032-760-1000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1가 10-1
- 2 인천대공원 >**
  - 시내버스 이용시 - 정문 : 8, 11, 14-1, 15, 16-1, 30, 103, 103-1번 - 후문 : 22, 33, 532, 535, 536번
  -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송내역 하차. 남광장 입구로 내려와서 시내버스 8, 11, 14-1, 16-1, 30, 103, 103-1번 승차 → 인천대공원 정문에서 하차
  - 홈페이지 : [grandpark.incheon.go.kr](http://grandpark.incheon.go.kr) 전화번호 : 032-466-7282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3-16
- 3 인천중합문화 예술회관 >**
  - 시내버스 이용시 - 시내버스 : 인천터미널 하차 : 3, 4, 6, 13-1, 21, 21-1, 22, 27, 24-1, 35, 36, 41-1, 45, 64, 77, 103, 514, 514-1, 534번 - 광역버스 : 1600, 1601, 2400, 9100 인천터미널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부평역 하차 → 인천지하철 환승 -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하차 (6, 7번 출구)
  - 홈페이지 : <http://art.incheon.go.kr> 전화번호 : 032-427-8401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8
- 4 부평아트센터 >**
  - 시내버스 이용시 - 10, 23, 35, 564, 564-1번 백운공원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전철 1호선 백운역 2번 출구, 백운공원 방면으로 약 350M (도보 5분)
  - 홈페이지 : [www.bpart.kr](http://www.bpart.kr) 전화번호 : 032-500-2000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166-411

